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崇禎曆書』와 관련 사료 연구*

주 핑 이**
번역: 이혜정***

1. 규장각 소장 『崇禎曆書』
2. 『曆引』 小論
3. 조선, 청나라, 도서관

초록: 본교에서는 규장각 소장 『崇禎曆書』을 분석하여 明代의 판본임을 확정지었고 현전하는 본 가운데 가장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았다. 이 명대 판본에서 『曆引』은 가장 독특한 부분으로 다른 현전하는 『崇禎曆書』 본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曆引』과 『新法曆引』을 비교해보면, 아담샬(Adam Schall, 湯若望)이 청나라에 온 이후 어떻게 급변하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이 만든 역법을 합법화 시켰는지를 알 수 있다. 규장각에는 이 외에도 청대 역서와 관련된 자료가 소장되어 있어 조선인들이 새로운 역법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했음을 보여준다.

핵심어: 奎章閣, 『崇禎曆書』, 『曆引』, 숭정역서약(崇禎曆書約), 아담샬(Adam Schall, 湯若望)

* 본 논문은 저자가 2008년 규장각에서 연구한 결과물이다. 이 자리를 빌어 아낌없는 지원을 해준 규장각 관계자분들과 金永植, 林宗台, 洪性旭, 申東源, 朴權壽, 文重亮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 대만 중앙연구원 역사언어연구소
*** 중국 북경 어언문화대학교

1. 규장각 소장『崇禎曆書』

『崇禎曆書』는 중국 曆算史에 있어서 하나의 분기점으로, 이후 중국은 서양의 천문기술을 받아들여 역법을 제정하기 시작했다. 그러나『崇禎曆書』는 완정본이 소실되어 그 원래 모습이 어떠했는지 지금은 알 수 없다. 따라서 수많은 학자들이 그 원래 모습을 再構하려고 노력을 기울였다. 潘鼐는『中國科學技術典籍通彙: 天文卷』에서『崇禎曆書』와『西洋新法曆書』를 합쳐 한 권으로 편집하여 정리했고[1] 2006년 외몽고 사범대학교에서 개최한 제4회 과학기술문헌 학술발표회의 주제 또한『崇禎曆書』였다. 이를 통해 수많은 학자들이『崇禎曆書』의 원래 모습에 대해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2]

『崇禎曆書』의 역사는 상당히 복잡하다. 이 책의 초고는 徐光啓(1562~1633)가 살아있을 때 대부분 編定하여 황제께 진상되었다. 서광계 사후에 李天經(1579~1659)이 뒤를 이어 다시 편찬하였다. 그러나 全書의 출판과정은 자세하게 알 방법이 없다. 더욱이 이 책은 청 왕조가 들어선 이후 여러 차례 이름이 바뀌고 재편찬되었다. 아담샬(湯若望, Adam Schall von Bell, 1591~1666)이 順治 2년 말(1646) 편정하여 출판했을 때,『西洋新法曆書』로 이름을 바꾸었고 1673년 南懷仁(Ferdinand Verbiest, 1623~1688)이 다시『新法曆書』로 이름을 바꾸었으며 乾隆 시기『四庫全書』에 수록된 후 또 다시『新法算書』로 책이름을 고쳤다. 이처럼 몇 차례의 재편찬 과정에서 첨삭과 수정은 있었지만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비록『西洋新法曆書』의 算表 부분은 누차 수정되었지만 이론적인 曆算부분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그러므로 도서관에서는 이러한 계열의 책들을 종종 잘못 분류하는 실수를 범하곤 한다. 예를 들면, 타이베이 고궁의『新法曆書』는『西洋新法曆書』로 제목이 잘못되어 있지만, 그 書根과 표지에는『新法曆書』라고 되어있다. 그 밖에도 현존하는『西洋新法曆書』 초판의 원고를 보면 아담샬이 이 책을 修撰할 때『崇禎曆書』의 書板을 사용하면서 수정한 판면을 다시 새겼음을 알 수 있다. 남회인이『新法曆書』를 재편했을 때에는 표지의 제목만 바꾸고 표지 아래의 版心에는 여전히「西洋新法

1) 潘鼐,「西洋新法曆書提要」, 薄樹人 編,『中國科學技術典籍通彙』(鄭州：河南教育出版社, 1993), 8, 643-650쪽.

2) http://www.imnu.edu.cn/html/2006-08/97.html, 2008년 6월 12일 검색. 필자는 관련 정보를 제공한 徐光台 교수에게 감사한다.

曆書」라고 했는데 내용과 판식은 완전히 같다.[3)]

명나라 말 몇몇 사람들이『崇禎曆書』를 읽었지만 이 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았다. 方孔炤(1590~1655)의「崇禎曆書約」은 방씨 집안의 자손들이 編錄한 것으로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崇禎曆書』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책은 실제로는『曆體略』과『泰西水法』을 초록한 것으로 방씨 집안 사람들이 실제로『崇禎曆書』를 보았는지는 알 수 없다.[4)] 이렇다면 혹시 방씨 부자가 보았던『曆體略』판본이 王懩倩과 翁漢麐이 1646년에 補註하여 출판한 문헌이 아닐까? 王英明이 숭정 改曆 전에 죽었고 또한 1646년에 출판된『曆體略』의 註에서『崇禎曆書』를 언급한 점으로 보아 방씨 부자가 혹시 이로 인하여『曆體略』이『崇禎曆書』를 발췌한 것이라고 여겼던 것은 아니었을까? 熊明遇는『格致草』에서『崇禎曆書』라는 책이름을 인용한 적이 있는데, 그 단락의 토론 내용은『測天約說』에서 나온 것이다.[5)] 그는『文直行書』에서『崇禎曆書』의 천체 현상을 인용하여 다른 사람의 생일 축하 글을 지었다.[6)] 웅명우는 또「欽天冊」을 편찬하며 숭정황제의 改曆에 대해서 칭송했는데, "이미『崇禎曆書』가 궁궐의 황실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라며 중국의 역대 역법과 비교 대조하고서『崇禎曆書』가 전대의 것들을 능가한다고 찬미하였다. 나아가 숭정황제가 백성들에게 정확한 때를 알려주는 공적을 이룸으로써 더욱 修省하여 하늘의 호응에 부합했다고 극찬했다.[7)] 熊明遇는 西法의 정확함으로 전통적인 중국 정치의 天地感應觀을 지지하고, 황제에게 天災와 地異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國政을 잘 처리하라고 완곡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王錫闡은 일찍이 스스로 만든 法으로『崇禎曆書』에 통달하였다. 따라서『崇禎曆書』는 왕석천이 창안한 법의 비교 기준이 되었다. 그러나 왕석천은 자신의 책에 대하여 "曆指는 法原이고, 曆表는 法數이다. 백 여

3)『崇禎曆書』가 여러 차례 이름을 바꾸고 여러 번 편찬된 그 정치적 의미와 曆算史에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오. 祝平一, "Archiving Knowledge: A Life History of the Chongzhen lishu (CalendricalTreatises of the Chongzhen Reign)," *Extrême-Orient, Extrême-Occident* (2007. 6) pp. 159-184.

4) 方孔炤,「崇禎曆書約」,『周易時論合編』『續修四庫全書』 冊15(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5), 147-148쪽.

5) 熊明遇,『格致草』「序」,『中國科學技術典籍通彙』 冊6(鄭州: 河南教育出版社, 1994), 55쪽.

6) 熊明遇,「壽劉大司空江餘暨配黃夫人偕壽序」,『文直行書』,『四庫禁燬書叢刊』 集部 冊106(北京市: 北京出版社, 2000), 366-368쪽.

7) 熊明遇,「欽天冊」『文直行書』, 463-466쪽.

권의 책이 수년에 걸쳐 완성 되어, 세상에 널리 유행했다. 曆을 말하는 사람은 모두 대대로 받들어 질 것이다."[8]라고 말했을 뿐 『崇禎曆書』에 관한 정보는 더 이상 남기지 않았다. 黃虞稷의 『千頃堂書目』에는 『崇禎曆書』 110권의 자세한 조목이 열거되어 있다. 그는 청나라 초기의 장서가로 책의 세목을 살펴보면 이 『崇禎曆書』는 완정본은 아니지만, 徐光啓가 進書했을 때의 書目과 비슷하다. 그러나 이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면 『測圓八線立成長表』, 『通率立成表』, 散表 등과 같은 책이름은 『崇禎曆書』와 관련된 자료 가운데에는 보이지 않는다.[9] 이는 아마도 황우직이 이러한 立成表와 散表를 적절하게 분류하지 않았거나 혹은 소장한 판본이 완정본이 아닌데서 기인했을 것이다.

당시 사람들의 기록으로는 『崇禎曆書』의 내용을 이해하기는 역부족이다.[10] 따라서 우리는 현존하는 자료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존하는 『崇禎曆書』는 대부분 殘本이고, 여러 곳의 도서관에 흩어져 있는데 예를 들면, 프랑스 국가 도서관 동방 필사본 보관소, 타이완 중앙연구원 傅斯年 도서관, 중국 북경 고궁박물관, 한국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관, 영국 옥스퍼드대학 도서관, 교황청 바티칸 도서관, 벨기에 황실도서관이다.[11] 인쇄 품질과 裝幀면에서 보면, 프랑스 국가 도서관 동방 필사본 보관소에 소장되어 있는 『崇禎曆書』는 원래 황실에서 사용되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남아있는 내용으로 보자면, 한국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崇禎曆書』가 현존하는 가장 완정한 판본으로, 『崇禎曆書』의 면모를 엿볼 수 있게 한다.

규장각 소장 『崇禎曆書』의 표지는 모두 『西洋新法曆書』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왕조의 교체에 따른 것으로, 이전 왕조의 역서에 본조의 새로운 제목을 덧붙인 것이다. 『崇禎曆書』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서광계나 이천경이, 또는 두 사람이 힘을 합쳐 督修하였으며, 欽天監 관리들의 분업에 관한 내용 역시 상세하게

8) 王錫闡, 『曉菴新法』, 『四庫全書』 冊 793(台北, 商務印書館, 1983), 453쪽.

9) 黃虞稷, 『千頃堂書目』, 『四庫全書』 冊 676, 360-361쪽.

10) 祝平一, 「崇禎曆書考」 『明史硏究』 11(2008), 133-161쪽.

11) 필자는 교황청 바티칸 도서관에 소장 중인 『崇禎曆書』를 아직 보지 못했다. 余東이 편찬한 목록을 보면 이 도서관에는 『幾何要法』 四卷, 『恆星曆指』卷一, 『割圓八線表』 『大測』 二卷, 『測天約說』 二卷 『黃赤距度表』, 『崇禎曆書』 殘卷이 소장되어 있다. 이밖에 이 목록에는 『西洋新法曆書』과 『新法曆書』가 분리되어 편성되어 있는데 『新法曆書』 본은 1646년으로 되어있다. 필자는 『新法曆書』가 南懷仁이 康熙 8년 이후에 『西洋新法曆書』로 개편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책을 『新法曆書』라고 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다.

기술되어 있다. 두 사람의 이름 앞에는 모두 그 직함이 적혀 있다. 또한 청나라가 들어선 이후 이름을 바꾼 여러『崇禎曆書』의 衍行本에는 직함 앞에 모두「明」자를 덧붙였다. 편찬에 참여했던 선교사들을 '極西 예수회 수도사' 또는 '遠西 예수회 수도사'라고 불렀다. 책 제목『崇禎曆書』의 字體가 전혀 일치하지 않는 점을 고려한다면, '遠西'와 '極西'가 다른 것은[12]『崇禎曆書』의 편찬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책을 간행하는 기술자가 바뀌어서 일어난 현상일 것이다. 이 가운데 유일한 예외는『測天約說』제2권을 '원서 예수회 수도사'가 한 것인데, 이 권은 각 책의 표지 첫 항에 유일하게 날짜를 기록하고 있다.

규장각 소장『崇禎曆書』의 내용에는『曆引』,『交食曆指』,『古今交食考』,『測食』,『恒星曆指』,『恒星經緯圖說』,『恒星經緯表』,『恒星出沒表』,『黃赤道距度表』,『正球升度表』,『五緯曆指』,『日躔曆指』,『日躔表』,『月離曆指』,『月離表』,『測天約說』,『割圓八線表』,『遠鏡說』,『比例規解』,『渾天儀說』,『測量全義』,『大測』,『籌算』가 있고『交食表』와『五緯表』[13]만이 빠져 있다.

규장각 소장『崇禎曆書』(奎中 3418-v.1-32)의 내용의 완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우리는 청왕조가 들어선 이후 더 이상『崇禎曆書』가 인쇄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가정했다. 역법은 한 왕조의 大典이기 때문에 아담샬은 이전 왕조의 역서를 인쇄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재편할 때『西洋新法曆書』로 제목을 바꾸면서 고심 끝에 '西洋'이라는 두 글자를 역서에 추가하였던 것이다. 게다가 청나라 전기에 文網이 나날이 심해졌지만 굳이 忌諱를 범한다고 볼 수 없었기에 이 책을 재인쇄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알려진 각종『崇禎曆書』의 판본은 대체로 잔본이라고 볼 수 있으며 書商들이 위조한 것이라고까지 의심할 필요는 없다. 사실 명나라 말기까지『崇禎曆書』는 끊임없이 수정되는 중이었으며,『西洋新法曆書』는『崇禎曆書』의 정본이라고 할 수 있다. 단지 왕조가 바뀜에 따라 이름을 바꾸어야만 했던 것이다. 만약 순치 판본『西洋新法曆書』의 내용을『崇禎曆書』의 내용 완성도의 표준으로 삼는다면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崇禎曆書』가 필자가 아는 한에서는 현전하는 본 가운데 가장 완성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14]

---

12) 현존하는 판본과 비교했을 때 규장각 소장『崇禎曆書』가 '遠西' 혹은 '極西'를 사용했다는 것은 대체로 비슷하다. 예를 들면,『月離曆指』에서는 옥스포드 소장본처럼 '極西'를,『五緯曆指』에서는 베이징 고궁 소장본처럼 '遠西'를 사용했다.

13) 전자는 옥스퍼드대학 소장본이고, 후자는 베이징 고궁박물관 소장본이다. 徐光啓 等 修輯,『崇禎曆書』, 故宮博物院 編,『故宮珍本叢刊』(海口市: 海南出版社, 2000).

潘鼐는『遠鏡說』,『測食』,『曆引』,『渾天儀說』이『崇禎曆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규장각 소장본으로 보건대 이 네 권의 책이 모두 숭정 말년에 역서에 수록된 것으로 생각된다.『遠鏡說』과『測食』은 모두 아담샬의 저작이다. 숭정 말년, 아담샬은 역서를 개편하는 세력 가운데 중심 인물이었다.『遠鏡說』에서는 서양의 새로운 천문기구와 신발견을,『測食』에서는 개력의 주요 원인을 소개하고 있어서 아마도 아담샬이 숭정 말년 이것들을 역서의 일부분으로 여긴 듯하다. 이천경은 그 뒤를 이어『曆引』과『渾天儀說』을 督修하였는데, 이 두 권에는 '崇禎曆書'라는 표지가 없다. 그러나『渾天儀說』은『崇禎曆書』와 비슷한 표지 뒷면을 갖추고 있어『渾天儀說』이 "法器部이자 旁通에 속한다"는 것임을 나타내었으며 참여자의 직위와 분업에 대해서도 기술되어 있다. 따라서『渾天儀說』은 아마도 숭정 말년에 이미 역서에 수록되었을 것이다. 규장각 소장『崇禎曆書』의『曆引』은 아담샬의 수정을 거친『西洋新法曆書』중『新法曆引』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이천경이 편찬할 때 이미『曆引』을『崇禎曆書』에 포함시켰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상 숭정 말년에 아담샬은 이미『崇禎曆書』의 내용과 구성을 완벽하게 구상하고 있었으며, 위에서 말한 여러 책들도 모두 그의 편찬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다.『曆法西傳』의「西新曆法」한 구절에서 아담샬은 역서를 만드는 노고를 말하면서 이미 어람용 역서를 완성해서 진상했다고 언급하였다.

> 내가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밤낮으로 하늘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서양의 법을 참고한 이후 어그러진 부분을 바로 잡고, 누락된 부분을 보충한 것이 수십 조항에 이른다. 그리하여 역서를 만들어 法原을 명확히 하고, 法數를 상세하게 정리하니 …… 모두 백여 권에 이르렀다. 이를 황제에게 진상하니 史官의 직책을 받는 은혜를 입었다. …… 이제 法原 여러 책의 권마다 요지를 잘 파악하여 읽기 편리하게 했다.[15]

---

14) 베이징 고궁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西洋新法曆書』의 序는 순치 2년에 씌여진 것이지만, 이 책의「新法曆引」등의 책에는 아담샬이 '勅錫通玄教師加二品通政使司通政使掌欽天監印務事'의 직함으로써 출현한다. 그러므로 베이징 고궁 박물관 소장『西洋新法曆書』는 아마도 1655년 이후에 인쇄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판본의 序와 아담샬의 奏疏가 順治 2년까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재판된 曆書는 아마도 순치 연간에 초판된 모습을 보존하고 있는 것이다. 黃一農,「耶蘇會士湯若望在華恩榮考」(1992),『歷史와 宗敎 — 아담샬 탄생 400주년 기념 및 천주교의 중국 전파 역사 국제학술대회 논문집』(台北: 輔仁大學校 출판사, 1992), 42-60쪽.

15) 湯若望,『曆法西傳』『西洋新法曆書』第1冊, 故宮博物院 編,『故宮珍本叢刊』(海口市: 海南出

法源의 여러 권을 소개한 후 아담샬은 曆을 배울 때 반드시 갖추어야 할 저작 내용을 열거했다.

> 역을 배우는데 필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를 들면 割圓法(원주율), 八線表(삼각함수표), 視學, 幾何要法, 測量全義, 渾天儀用法, 比例規, 籌算開方 등의 法은 旁通의 학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역을 배우는데 있어 반드시 갖추어야 되는 것이다.[16]

책에서 "황제가 마침내 魏文魁 등을 귀향 보내고, 오직 한뜻으로 새로운 법을 반포하였다. 나라가 어지러우니 앞날을 생각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17] 기술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필자는『曆法西傳』이 숭정 말년에 저술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숭정황제가 16년(1643) 8월에 서법을 사용하라는 조칙을 내렸는데[18] 말투로 보면『曆法西傳』은 위문괴가 축출되고 숭정황제가 개력에 대한 조칙을 내린 시기에 저술된 것 같다. 만약 그렇다면,『渾天儀說』과 같은 문헌들은 이후 머지않아『崇禎曆書』에 수록되었으며,『崇禎曆書』와『西洋新法曆書』의 격차는 순전히 왕조가 교체된 까닭으로 발생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규장각 소장『崇禎曆書』는 명나라 말기에 이미『崇禎曆書』가 간행된 뒤에도 끊임없이 수정되고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崇禎曆書』가 명나라 때 출간된 것이라는 또 다른 증거는 이 책의『曆引』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西洋新法曆書』,『新法曆書』,『新法算書』에는 모두『新法曆引』이 있다. 이것은 아담샬이 명나라 말기에 로(羅雅谷, Giacomo Rho, 1593~1638)가 편찬한『曆引』에 근거하여 개편한 것으로 두 책의 내용은 완전히 같지는 않다(표 1).『新法曆引』이 유통되면서 명나라 판본『曆引』이 점차 자취를 감추었다. 馮榮錦 교수는 일찍이 일본 安政 2년(1855)의『崇禎曆書曆引』간행본에 의거하여『新法曆引』과『曆引』의 차이를 비교하였다.[19] 규장각 소장『曆引』은 해외의 유일본으로 매우 귀중한 자료일 가능성이 있다.[20] 또 풍영금 교수는『曆引』이 미처 황제께 진상되지 않은 본이라고 여겼는데 이는 규장각

版社，2000), 263쪽.

16) 湯若望,『曆法西傳』, 274쪽.

17) 湯若望,『曆法西傳』, 26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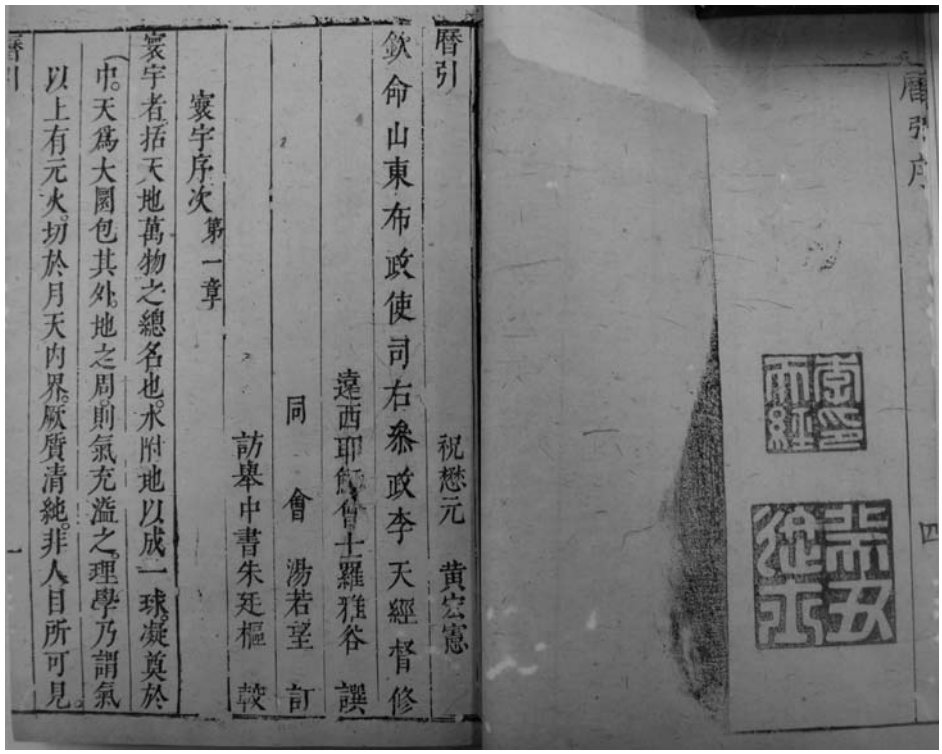
18) 張廷玉 等,『明史』「曆」一,『四庫全書』, 冊297, 366쪽.

19) 馮榮錦,「李天經과『崇禎曆書曆引』」, 李熾昌 主編,『文本實踐與身份 辨識：中國基督徒知識分子的中文著述(1583~1949)』(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5) 218-226쪽.

20) 상하이 도서관에도『曆引』필사본을 소장하고 있다.(線善T49120-21), 판본을 필사한 것이다.

〈표 1〉『曆引』과『新法曆引』의 내용 비교표

『曆引』	『新法曆引』
李天經序	
寰宇序次	曆學維新
天體	地球
天道	天道
日軌	曆元
年月	曆算
晝夜晨昏	句股
恆星	割圓
太陰	恆星
交食	星中出沒
五緯異行	日軌
五緯緯行	年月
五星伏見	晝夜晨昏
星中出沒	太陰
三餘	交食
曆學改革	三餘
曆元	五緯異行
曆算	五緯緯行
句股	五星伏見
割圓	測太陽
測器	測恆星
測太陽	測太陰
測恆星	測五緯
測太陰	測器
測五緯	時晷
測時晷	
新舊二法疎密之徵	
訂正古法	


曆引
祝懋元 黃宏憲
欽命山東布政使司右參政李天經督修
遠西耶穌會士羅雅谷 譔
同 會 湯若望 訂
訪舉中書朱廷樞 校
寰宇序次 第一章
寰宇者括天地萬物之總名也。水附地以成一球。凝奠於中。天爲大圜包其外。地之周則氣充溢之。理學乃謂氣以上有元火。切於月天內界。厥質清純。非人目所可見

〈그림 1〉『曆引』첫 페이지

『曆引』의 版面에서 증명될 수 있을 듯하다. 일반적으로는 각『崇禎曆書』의 편찬 책임자인 서광계 혹은 이천경이 표지 아래쪽의 첫째 줄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규장각 소장『曆引』에서는 흠천감이었던 祝懋元과 黃宏憲이 첫 번째 줄에 적혀있다. 인명의 기록에 있어 이와 같이 뚜렷한 배열의 착오로 볼 때 이『曆引』본이 아직 진상되지 않았거나 최소한 수정을 거친 뒤에야 진상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그림 1). 일본 安政시기의 판본은 이러한 착오를 교정하였고, 龍華民을 저자의 한사람으로 추가하였으며 다시 '訪擧博士 李次彪潤'을 덧붙였다. 그리고 교정자에 '訪擧儒士 陳士蘭'을 추가했고 '耶穌' 두 글자를 삭제하여 '遠西會士'라고 함으로써 종교를 금지했던 일본의 상황에 부합되게 만들었다.[21] 흥미로운 것은 安政시기 서문을 지었던 澀川景祐(1787~1856)가 아담샬의『新法曆引』에 대하여 "설

21) 羅雅谷・龍華民 著, 澀川祐賢 校,『崇禎曆書曆引』(早稻田大學 소장, 安政 二年 출판), 1a쪽. 일본과 한국의 판본을 비교해 보았을 때, 규장각 소장본이 原稿에 가깝다.

명하는 바가 개략적이라 『崇禎曆書曆引』만큼 완전하지 않아서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는 점이다.[22]

2. 『曆引』 小論

아담샬이 개편한 『新法曆引』은 문장이 비교적 유려하고 순서 역시 역법의 논리성에 합치되지만 西法을 소개하는 방식에 있어 『曆引』과 차이가 있다. 『曆引』은 먼저 '寰宇序次'로서 서양의 우주론, 地圓, 기후대, 지구의 크기, 月天下四行의 성질 및 작용, 그 위의 十二重天을 소개했다. 이것은 마테오리치(利瑪竇)가 『乾坤體義』에서 소개한 우주형상과 거의 비슷하다 흥미로운 점은 로(Giacomo Rho, 羅雅谷)가 여기에서 소개한 우주관이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의 수정구 모형이지, 『崇禎曆書』에서 사용된 티코 브라헤(Tycho Brahe, 第谷) 모형이 아니라는 점이다. 로는 개력의 근본이 서양의 우주관에 바탕을 두었다고 표명했을 뿐만 아니라 우주질서에는 전지전능한 천주가 숨어있어 역법을 예측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엠마뉴엘 디아즈(Emmanuel Diaz, 陽瑪諾, 1574~1659)는 『天問略』에서 "십이중천은 하느님과 여러 신이 계시는 성지로, 지극히 조용하여 움직이지 않으며, 그 광활함은 비길 곳이 없으니 바로 천당이다."[23]라고 말했다. 로는 "하늘에 있는 별 외에는 여러 현상들을 관측할 수 없다. …… 그러므로 논하지 않겠다."[24]고 하였지만 역법의 토대를 암암리에 천주교의 우주관 안에 감추어 놓았다.

로는 우주의 대략에 대하여 기술한 이후 천체, 천체 운행의 궤도, 연월의 길이, 그 다음으로는 恆星, 五星, 交食, 서양의 측정과 계산법 그리고 측정기기에 대해서 차례대로 서술하였으며 마지막에는 중국 曆算에 대해 비평하였다. 그러나 그는 「天體」절에서 오히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의 수정구 모형과 티코 브라헤 모형의 차이를 비교하였고, 또 "별들이 여러 天層에 각각 고정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25]고 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정구 모형론을 부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方以智가 "서학은 한 학파만 있는 것이 아니어서 각각 여러 가지 방법으로

22) 澀川景祐, 「刻曆引敘」, 羅雅谷・龍華民 著, 『崇禎曆書曆引』, 2b쪽.

23) 陽瑪諾, 『天問略』, 四庫全書』, 冊787, 852쪽.

24) 羅雅谷, 『曆引』, 3b쪽.

25) 羅雅谷, 『曆引』, 4b쪽.

계산을 하여 이론에 있어서는 여전히 모호하니 어찌 구체적인 논증만을 근거로 삼을 것인가?”[26] 라고 말한 것도 이상하지 않다. 천체가 움직이는 이유에 대해서로 조차도 신학의 방식으로 “하늘은 살아있는 물체가 아니므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다. 움직임의 근원은 반드시 공간 밖에 있으니 층마다 靈者가 있어 그것을 주관한다”[27]라고 대답하였다. 월천이하 세계의 운동에 대해서 로는 四行 본성의 자연적인 추세로 이해했던 것이다.

로는『曆引』의 마지막 두 절인「新舊二法疎審之徵」와「訂正古法」에서 중국의 法이 세밀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舊法의 절기가 분명하지 않고, 위도로 태양의 주야출입시간을 계산하고, 歲差를 고려하지 않아 宮道에 차이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經星의 距度에 편차가 있고, 五星의 계산도 정확하지 않고, 단지 立成表에만 의존해서 계산하여 역법의 원리를 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로는 新法의 측정기가 비교적 우수하고 호삼각형의 法을 갖추고 있어 신법은 구법의 일월 및 地景의 徑道를 수정했다고 주장했으며, 또한 구법이 緯行 및 小輪의 이치를 잘 모르고 시차를 고려하지 않으며, 직각삼각형・할원 및 여러 삼각형의 全法이 없다고 맹공을 퍼부었다.[28] 로는『曆引』에서 서양 神學의 우주관에서 시작하여 舊法을 비판하는 것으로 끝을 맺었는데, 舊法과 맞서 승리를 쟁취하려는 의도 이외에 改曆의 기회를 빌려 암암리에 천주교의를 전파하고자 했던 것이다. 하느님의 비호 아래 신법의 우수함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신의 뜻인 자연 질서의 일부분임을 주장하고자 했던 것이다.

아담샬은『新法曆引』에서 舊法에 대한 로의 비판 부분을 삭제하였고, 관련된 문제를 종합하여『新法表異』의 하권에서 탐구하였다. 그러나 청대에 이르러 정세가 변화함에 따라『新法曆引』은 판이하게 다른 책략을 강구하였음에 주목할 만하다. 아담샬은 하느님과 천사를 영사(映射)하는 수정구 모형을 버리고 서법의 기원과 실측상의 정확함, 그리고 역법이 새로운 왕조에 미치는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신법을 소개하였다.

> 신법은 클라우디오스 프톨레마이오스(그리스어: Κλαύδιος Πτολεμαῖος), 알폰소 10세(Alfonso X), 코페르니쿠스(Copernicus), 티코 브라헤(Tycho Brahe) 등 서양의 유명

26) 方以智,『物理小識』,『四庫全書』, 冊867, 771쪽.

27) 羅雅谷,『曆引』, 4b쪽.

28) 羅雅谷,『曆引』, 58a-61a쪽.

> 한 역법가에 기원을 둔다. 대개 서양의 역학은 스승에게서 전승받아 저마다 일가를 이루는데, 이 네 사람은 후학들이 매우 존경하는 학자이다. 저술도 많고, 실험도 정밀했고, 立法도 실제에 응용하는 등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다. 후학들은 그들의 정밀함을 취하고 심오함을 탐구하였으며 독창적인 것을 얻어 다른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한 것을 발견했다. 오늘날 측정한 것을 다시 확인하고, 옛날에 측정한 것을 넓힘으로써 하늘에 합치되는 것을 구하였다. 시대와 시기를 서로 고증하고 중국 것과 서양 것을 나열하니 반은 여전히 옛 것이지만 서로 다른 것을 합하여 하나로 만들었다.[29]

아담샬이 신학의 우주관으로 새로운 역법을 합법화하는 것을 포기했는데, 이는 단지 『西洋新法曆書』에서 티코 브라헤의 모형을 사용하여서가 아니라 새로운 통치자의 관심이 우주관의 문제가 아닌 역법의 정확성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담샬은 제1절 「曆學維新」에서 명나라 역학의 가장 어려운 점은 創法에 있다고 표명하였다. 즉, 중국이 만든 역법이 70여 종에 이르지만 立法할 수 있는 것은 겨우 13가지 밖에 되지 않으며, 이처럼 새롭게 창안한 법들은 역학의 원리를 밝히지 못하는데, 설령 역법을 고친다 하더라도 각종 수치의 조정에 불과할 뿐이라고 그 난점에 대해서 피력했다.[30] 立法 창신의 어려움은 아담샬의 공헌을 더 두드러지게 하였다. 게다가 신법은 중국의 역법처럼 마음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천년의 전통을 기반으로 하여 編訂되어 그 권위에 도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 신법은 한 사람의 法이 아니며, 근래에 새로 만들어진 法도 아니다. 옛것에 통달하고 심사숙고하여 서로 考定한 것을 참조함으로써 얻어낸 진리로 함부로 논의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다.[31]

아담샬의 신법은 서양의 고금 역법이 전수하는 것을 융합한 것이니만큼 겉에 '西洋' 두 글자를 붙여 신법의 내원에 대해 분명히 설명하였다. 또한 "신법은 서양의 전통에 근본을 둔 것이니 하늘에게 강요하여 억지로 법을 이룬 것이 아니라 법을 만듦으로써 하늘에 부합 된 것이다."[32] 이처럼 天行에 합치되어야 하는 역법은 새로운 왕조의 天命에 부합되어야 영원히 전해질 수 있다.

---

29) 湯若望, 『新法曆引』, 『西洋新法曆書』 第1冊, 276쪽.

30) 湯若望, 『新法曆引』, 275-276쪽.

31) 湯若望, 『曆法西傳』, 256쪽.

32) 湯若望, 『曆法西傳』, 262쪽.

책을 만들어 조정에 진상하니 新法이 천하에 시행되었다. 태평성세의 역법 책으로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내어 시대를 뛰어 넘었다. 여러 조상에게 물어보니 억만년이 지나도 영원히 변치 않으리라.[33]

아담샬은 '立法者'로서 청나라의 천명을 지켰다. 신법과 구법의 차이는 마치 명나라와 청나라 사이의 균열과 같다. 그는 신법의 합법성의 기초를 새로운 조정과 연결시켰다. 신법은 더 이상 상제가 건립한 우주 질서에 의존하지 않고, 세속의 군주가 만든 인위적인 질서에 기대었다. 신법은 새로운 인위적인 질서의 符命인 것이다. 이로 인하여 아담샬은 欽天監의 관리가 되어 선교사로서의 안정된 근거지를 얻게 되었다.

3. 조선, 청나라, 도서관

규장각 소장『崇禎曆書』의 연원이 어떠한지는 지금은 확실하게 알 수 없다. 숭정4년(1631) 명나라 사신으로 갔던 鄭斗源이 서양의 역법자료와 천문기기, 그리고『曆緣起』1권을 가지고 돌아왔다. 이러한 기록이 확실하다면, 徐光啓 등 역법을 고친 사람들이 일찍부터 의도적으로 개력의 과정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아마도 선교사가 교회와 관련된 관방의 문서를 수집한 것과 관련이 있거나 또는 통신사 제도에서 기인한 것이다.[34] 1644년 관상감 책임자 金堉은 日官 두 명을 데리고『時憲曆』을 배우러 청나라에 사신으로 갔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서적만 구입하여 돌아왔다.[35]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崇禎曆書』는 바로 이때 사가지고 돌아온 것이 아닐까? 이후 역서를 구입해서 귀국하는 일은 燕行 사신들의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의 昭顯世子는 명말 盛京에 볼모로 잡혀 있다가 1645년 귀국했다. 서학에 매우 심취하였던 소현세자는 조선으로 돌아올 때 서학 서적과 천문 측정기 등을

33) 湯若望,『新法曆引』, 276쪽.

34) 이 자료도 옥스퍼드 대학에 소장되어 있는『崇禎曆書』에 어째서『治曆緣起』가 수록되어 있는지를 알려준다. 필자는 옥스퍼드 대학에 소장되어 있는『崇禎曆書』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 石云里 교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35)『增補文獻備考』「象緯考」卷一(서울: 明文堂, 1959), 18-19쪽. 필자는 이 자료를 제공한 林宗台 교수에게 감사드린다.

가지고 왔다고 한다. 명나라와 청나라가 교체되는 시기에 북경에 있던 조선 사신들은 항상 『時憲曆』과 관련된 정보를 염탐하였다. 조선 사신 李景奭은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 신 등은 『時憲曆』을 몰래 구입하는 일을 여러 사람들에게 부탁했으나,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아담샬이라는 사람도 만날 방법이 없습니다. 마침 본국의 日官 李應林의 아들 奇英을 만났지만 저들에게 잡혀갔습니다. 그 사람은 산술에 능통하고 중국어도 잘합니다. 신이 그에게 아담샬에게 역법을 배워오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날을 기약하고 그 아비를 보내어 전하였습니다. 또 백금 수십 냥을 주어 아담샬한테서 역법책을 사오도록 하였는데 다른 날 가져올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책은 모두 140-150권입니다. 『時憲曆』은 서양사람 아담샬이 저술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신들이 북경에 들어가 어렵게 한권을 얻었습니다. 『時憲曆』과 舊曆을 비교해보면, 24절기가 매우 다릅니다. 아담샬이 북경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신이 가서 『時憲曆』을 구하려고 하였지만, 끝내 입수하지 못했습니다.[36]

조선 사신들은 막 출판된 『時憲曆』을 비밀리에 구입하여 손에 넣고자 했다. 심지어 청나라 사람에게 잡혀간 조선 사람을 보내 아담샬에게 배우도록 하여 나중에 조선에 역법을 전하고자 많은 힘을 기울였다. 李景奭은 『時憲曆』이 舊法과 다르다는 점을 간파하고 갖은 노력을 다해 구입하고자 했던 것이다.

1651년 조선은 사신을 보내 "여러 차례 뇌물을 주고 흠천감에게 배워" 1653년에 처음으로 『時憲曆』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五星의 계산은 여전히 정확하지 않았다. 조선의 관상감은 심지어 何國宗의 아버지 何君錫에게 편지를 보내 『二百恆年表』 중 日躔(태양의 궤도)의 高衝에 대하여 토론하였는데, 金水星의 引數, 年根 등의 문제에 대하여 논하였다. 관상감은 당시 何君錫의 나이가 연로한 것을 보고는 "하군석이 죽기 전에 배워야 한다"고 건의하였으며, 그해 청나라 사신으로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年根法의 원인에 대하여 탐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37]

조선 사람들은 서양의 曆算法에 대하여 흥미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과 서양의 역산법의 논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다. 규장각 소장 『西洋曆法』

---

36) 國史編纂委員會, 『朝鮮王朝實錄』「仁祖實錄」二十四年(1646年) 六月戊寅, 卷四七(서울: 國史編纂委員會東國文化社, 1955~1958), 278쪽. 필자는 이 자리를 빌어 자료를 제공한 林宗台 교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바이다.

37) 『增補文獻備考』, 「象緯考」 卷一, 19-2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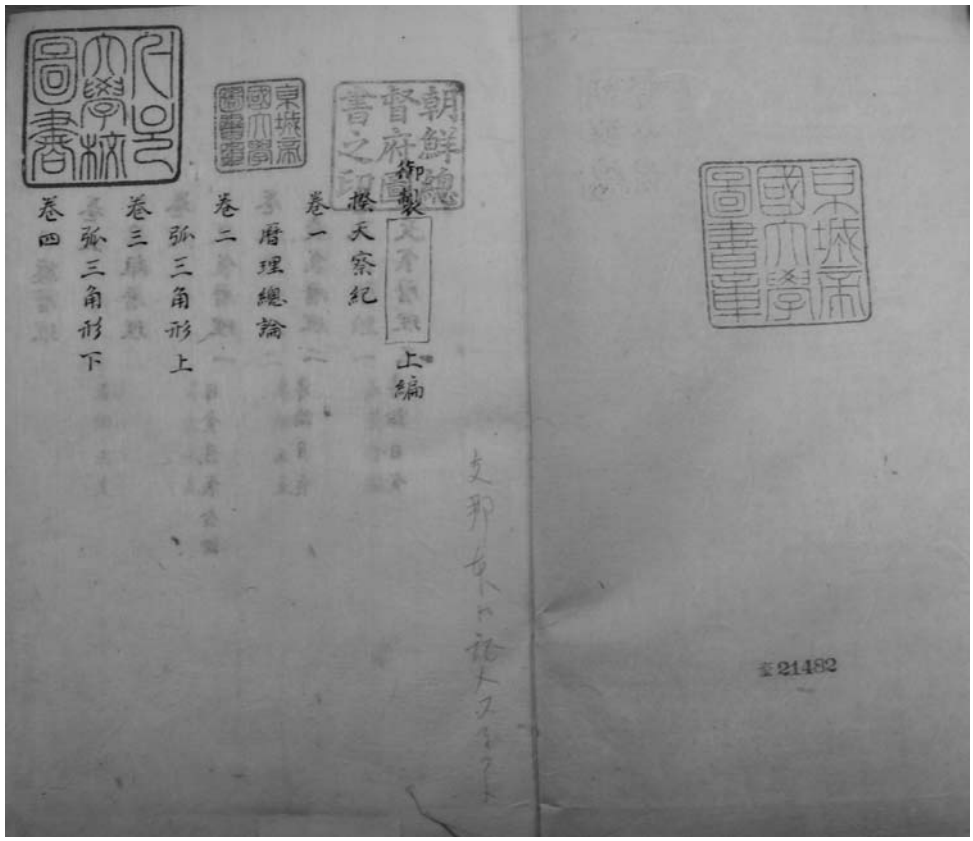
(奎中 3419-v.1-82)의 표지 제목에는『新法曆書』라고 되어 있다. 이『西洋曆法』82冊 가운데 아담샬이 미처 분권하지 않은『奏疏』은 숭정 17년에 수록되었는데, 이는『治曆緣起』와 같다. 이 책에는 남회인이 강희8년에 상주문을 올려 집성한『熙朝定案』과 남회인이 楊光先을 반박한『不得已辨』이 수록되어 있다. 우리는『朝定案』과『不得已辨』이 어떻게『西洋新法曆書』에 섞여 들어갔는지 알 수 없지만, 書衣가『西洋曆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마도 이처럼 혼동되어 있는 상황을 수용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규장각 소장『西洋曆法』은 '康熙曆獄'에 대한 조선 사람들의 관심을 나타내는 것 같다.

다음으로 당시 조선인들이 중국의 曆算과 관련된 소식을 얻는 속도는 상당히 놀라울 정도로 빨랐다. 규장각에는 10冊 16卷의『欽若曆書』(奎 12712-v.1-10) 필사본이 소장되어 있다.『欽若曆書』의 원래 이름은『曆象考成』인데, 마지막에 왜 그 이름을 바꾸었는지 알 수 없다. 상하이(上海) 푸단(復旦)대학에 소장되어 있는『欽若曆書』은 書口 위의 '欽若曆書'가 모두 지워져 있지만 그 나머지 판식과 내용은『曆象考成』과 같다.[38](그림 2)

그러므로『欽若曆書』는 康熙 말년 曆算 신지식의 半成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 사람들은『曆象考成』이 정식으로 출판되기 전 반제품을 베낀 것이라 판식과 내용 그리고 지워진 書口까지『欽若曆書』과 같은 것이다. 조선 사람들은 청나라의 曆算이라는 새로운 지식을 적극적으로 얻으려고 하였는데, 그 속도의 민첩성은 실로 감탄을 금할 수 없을 정도였다. 또한 조선 사람들은 역법의 통계수치를 바꾸려고 하는 속도도 상당히 빨랐다. 그들은 1725년에 이미 카시니(噶西尼)의 통계수치와 케플러(Johannes Kepler, 喀卜勒)의 타원궤도론을 사용하였다.[39]

조선 사람들은 청나라의 역법을 받아들였지만 청나라 초기부터 건륭시기까지 조선 사신들은 曆算과 관련된 정보를 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였다. 예를 들면, 강희 59년(1720) 조선 사신은 선교사 쾨글러(Ignatius Koegler, 戴進賢, 1680~1746)와 프리델리(Xavier-Ehrenbert Fridelli, 費隱, 1673~1743)에게 "서양천문학 책을 한자로 번역한 것이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두 사람은 웃으며 "황실 안에 있어서 쉽게 볼 수는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조선 사신에게 推步書 한 권을 주었다.[40] 이 일화는 청나라에 갔던 조선 사신들이 청나라의 과학기

38) 푸단(復旦) 대학 도서관 吳格 선생의 도움으로 빠른 시간 안에 이 책을 열람할 수 있었다.
39)『增補文獻備考』「象緯考」卷一, 20쪽.



〈그림 2〉『欽若曆書』 필사본

술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조선 사신들이 서적을 구입하는 것 이외에도 선물을 교환하는 방법으로 필요한 자료를 모았음을 설명하고 있다. 1741년 “譯官 安國麟國麟과 卞重和는 천주당을 다니며 서양사람 쾨글러(戴進賢), A.페레이라(徐懋德, andre pereira, 1689~1743)과 친분을 나누며『日月交食表』,『八線對數八線表』,『對數闡微表』,『日月五星表』,『律呂正義』,『數理精蘊』,『日食籌稿』,『月食籌稿』를 입수했다.”[41] 조선 사람들은 정으로 감동시켜 이익을 도모함으로써 그들이 원하는 정보를 얻었던 것이다. 그러나 구매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었는데, 예를 들면

40) 李器之,『一菴燕記』(抄本) 페이지 없음. 자료를 제공한 林宗台 교수에게 심심한 감사를 표한다.

41)『增補文獻備考』「象緯考」卷一, 21쪽.

1744년 그들은 2년 전 완성된『曆象考成後編』를 샀다.[42)]

조선 사람들은 단순히 중국의 역서를 얻는 것에 그치지 않고 판각과 필사의 방식으로도 이러한 정보를 널리 퍼뜨렸다.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조선시대 고문헌 중에는 판각본으로는『新法曆書』와『曆象考成後編』, 필사본으로는『西洋新法曆書』과『新法曆書』이 있다.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여기에서 중복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으며, 심지어 이 같은 천문 자료를 다시 판각하고자 한다면, 조선의 위치에 따라 다시 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가질 것이다. 규장각 소장『康熙十八年時憲書』에는 사용한 사람의 필기가 빽빽하게 가득 차 있다. 이러한 판각본과 필사본의 내용은 同名의 중국 서적과 다르지 않지만, 조선, 청나라, 서양이라는 다른 세계가 서로 교차되고 충돌하였음을 보여준다.

필사 자체는 원래 신성한 행위이며 완벽하게 그것의 원본을 복원시키고자 하는 것이라 마치 신이 자신의 모습에 의거하여 사람을 만드는 행위와 같다. 그러나 완전하게 복원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겨운 일로, 신의 형상으로부터 만들어진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신/아버지를 배반하여 타락하는 것과 같다. 이는 마치 도서관의 탐험자가 원본과 다른 판본이나 필사본을 만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문헌에서 우리는 역사의 행위자가 어떻게 개별적인 책을 열람하고 사용했는지 알 수 없다. 또한 이러한 서적들의 위상과 이 책들이 어떻게 규장각에 자리하게 되었는지도 알 길이 없다. 그러나 문헌들은 조용히 서가에 위치한 채 시대가 변하고, 사람이 변하여도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다. 단지 자신의 존재로서 후대 이용자들에게 무한한 사색을 자극하고, 묵묵히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할 뿐이다.

Jorge Luis Borges는 우주가 마치 도서관처럼 끝없이 펼쳐져 있고 천당도 분명 도서관의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중국어권의 여행자가 다른 도서관에서부터 규장각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같은 책들이 동일한 무질서 속에서 (무질서도 되풀이되면 질서가 될 것이다. 절대적 질서가) 되풀이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처럼 멋진 희망이 생기면, 나의 고독은 다소 위안을 얻게 되리라"[43)]

---

42)『增補文獻備考』「象緯考」卷一, 21쪽.

43) Jorge Luis Borges,「바벨의 도서관」, 林一安 主編,『Jorge Luis Borges, 전집』冊1(杭州: 浙江文藝出版社, 1999), 123쪽.

논문투고일(2009. 5. 1), 심사일(1차: 2009. 5. 18, 2차: 2009. 5. 30),
게재확정일(2009. 6. 10)

참고문헌

潘鼐,「西洋新法曆書提要」, 薄樹人 編,『中國科學技術典籍通彙』, 鄭州：河南教育出版社, 1993.

方孔炤,「崇禎曆書約」,『周易時論合編』『續修四庫全書』冊15,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5.

熊明遇,『格致草』「序」,『中國科學技術典籍通彙』 冊6, 鄭州: 河南教育出版社, 1994.

熊明遇,「壽劉大司空江餘暨配黃夫人偕壽序」,『文直行書』,『四庫禁燬書叢刊』 集部 冊106, 北京市: 北京出版社, 2000.

王錫闡,『曉菴新法』,『四庫全書』冊 793, 台北, 商務印書館, 1983.

祝平一,「崇禎曆書考」『明史研究』11, 2008.

湯若望,『曆法西傳』『西洋新法曆書』第1冊, 故宮博物院 編,『故宮珍本叢刊』, 海口市: 海南出版社, 2000.

馮榮錦,「李天經과『崇禎曆書曆引』」, 李熾昌 主編,『文本實踐與身份 辨識：中國基督徒知識分子的中文著述(1583~1949)』,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5.

國史編纂委員會,『朝鮮王朝實錄』「仁祖實錄」 二十四年(1646年) 六月戊寅, 卷四七, 서울: 國史編纂委員會東國文化社, 1955~1958.

Jorge Luis Borges,「바벨의 도서관」, 林一安 主編,『Jorge Luis Borges, 전집』冊1, 杭州: 浙江文藝出版社, 1999.

Abstract

A Study on the *Chongzhen lishu* Housed in the Kyujanggak Library and Other Related Materials

Zhu, Pingyi

This paper examines the *Chongzhen lishu* (*CalendricalStudies of the Chongzhen Reign*) housed in the Kyujanggak library closely andconcludes that it includes the most contents than other collections of the *Chongzhen lishu* that we know of. Its *Liyin* (Introduction to the Calendar) is the most valuable, probably the only extant Ming edition of the text, from which we see how Adam Schall changed his strategy to legitimate the newcalendar he had made. Other related materials in the Kyuganggak reveals how the Choson dynasty attempted to acquire astronomical information from the Qing aggressively.

Keywords: Kyujanggak, *Chongzhen lishu, Liyin,* Adam Schall